

정유4사, 이란산 원유 대체 “걱정”

미국 이란제재로 수입중단 우려 ... 대체수입 추가비용 4145만달러

정유4사가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총 8724만배럴의 원유 중 이란산이 8.32%인 726만배럴에 이르는 가운데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고 있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지만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의지가 강경해 상황이 가변적이며, 정유기업들은 중질유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을 추출하는 고도화설비를 크게 확대해 저렴하면서도 중질유인 이란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Petronet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란산 석유 수입가격은 배럴당 102.89달러로 아랍에미리트 108.6달러, 사우디 106.29달러, 쿠웨이트 104.71달러에 비해 1.82-5.71달러 낮을 뿐만 아니라 2011년 국내 중질유 평균 수입가격인 104.73달러에 비해서도 2달러 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이란산을 대체할 아랍에미리트 원유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 정유기업들은 연간 4145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밖에 원유를 싣고 올 선박을 재계약하는 등 추가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외 다른 정유기업들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다른 종류의 원유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 금지가 확산된다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정유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1>